이주열 한은총재 "구조조정 역할 적극 수행"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제동 건데서 한발짝 물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재원을 어떤식으로 지원할지 관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지원사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원칙론'으로 제동을 걸면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일단 이를 잠재우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여러차례 밝혀 왔다"며 "당행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도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이날 독일에서 4박5일간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간부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이 공개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총재가 자리를 비운 기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차원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간부들에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 발언을 할 때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동안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날 발언도 표면적으로는 한은의 기본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은이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모습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29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잇따라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마치 한은이 정부와 금융당국과 갈등 양상을 빚는 것처럼 해석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같은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인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책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단 이 총재가 갈등 양상을 차단하고 한은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정부와의 대립각을 접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정부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은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거나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현금·현물 출자 등의 방안도 논의선상에 올라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총재와 같은 해외 출장길에 오른 유 부총리가 국책은행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두 수장간의 공식적인 회동은 잡혀있지 않지만 재원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한 상황인만큼 정책 공조를 모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4일 열리는 국책은행의 재원확충 협의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기재부의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한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실무진들이 참석한다. /안진수 기자

국제과학대회 전원 수상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인솔단장 김영미)은 지난달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공학·환경 프로젝트 올림피아드(I-SWEEEP)에서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한 10팀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내연구진, 유기태양전지 상용화 길 열어

국내 연구진이 웨어러블(착용)·휴대용 전자기기의 차세대 전원으로 각광받는 유기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광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연구팀이 고효율의 인쇄형 적층 유기태양전지 제작 공정을 크게 줄인 새로운 인쇄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기태양전지는 실리콘 등 무기물 기반 태양전지와 달리 가볍고 유연하여 휴대하기 쉽다. 증착공정이 아닌 용액공정이 가능해 값싼 비용으로 신문 찍어내듯 연속 생산할 수 있어 저가형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기물 기반 태양전지와 상응하는 광변환 효율은 폭넓은 흡광영역을 지닌 적층형 구조로 얻었지만 복잡한 공정은 실제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쇄공정에서 고효율 적층형 유기태양전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구팀은 분자 전해질인 기능층(PEI)과 광활성 물질을 혼합한 나노혼합물을 적층형 유기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인쇄공정에 적용, 자발적인 상분리로 기능층(PEI)과 광활성층을 한 번의 인쇄 공정으로 형성해냈다.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쇄 공정으로 제작된 적층형 유기태양전지 중 구조가 가장 단순하다. 광변환 효율은 9.1%로 실리콘 기반 무기태양전지 효율(최대 10%)에 근접한다.

이 교수는 "인쇄 기법을 통해 고효율의 적층형 유기태양전지의 생산 공정 단계를 크게 줄여 단순화시켜 공정비용이 크게 절감했다"며 "유기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나노혼합물의 자발적인 상 분리를 이용하는 인쇄 기술은 유기태양전지는 물론 유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OLED 면광원 등 전반적인 유기 전자소자의 제작 공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안진수기자

3월 경상수지 49개월째 연속 흑자 이어가

3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0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장 기간인 49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0억9000만달러를 나타냈다. 1분기에만 240억8000만달러 흑자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49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수출은 3월 기준 445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3% 하락해 전월(-10.1%)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수입은 321억달러로 16.1% 줄어들면서 전월(-13.8%)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에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보다 확대된 12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가 개선되면서 전월(12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10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 근로 및 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본원소득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대외 배당지급 증가로 8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고, 이전소득수지는 5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순자산 규모는 지난달 129억1000만달러 증가해 전월(95억달러)보다 늘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투자 중 내국인 해외투자는 92억7000만달러로 전월(29억4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외국인 국내투자도 34억달러 늘어나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안진수 기자

주파수 경매 종료… 황금 주파수는 LG유플러스

미래부, 8라운드만에 원만히 끝나

미래창조과학부는 8라운드만에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경매 대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과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 폭이다.

이번 경매에서 '황금 주파수'로 꼽혔던 C블록은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인 3816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2.1㎓대역에서 광대역(40㎒)을 구축하지 못했던 LG유플러스는 향후 동등경쟁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원활한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며 "주파수경매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된 것같다"고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SK텔레콤은 사용기한 만료로 반납한 2.1㎓ 대역 대신 2.6㎓ 대역에 배팅했다. SK텔레콤은 광대역인 D블록을 최저경쟁가격인 6553억원을 뛰어넘는 9500억원에, E블록은 최저경쟁가격인 3277억원에 확보했다. 업계는 SK텔레콤이 2.1㎓ 대역 기존 투자비 매몰, 2.6㎓대역 신규 투자비 지출을 감내하고 재할당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주파수 대가가 예상 범위로 실적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KT는 1.8㎓ 대역을 최저경쟁가격인 4513억원에 낙찰받으면서 신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KT는 신규 주파수를 싼값에 확보하고 기존 주파수 할당비용도 최소화해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다.

KT측은 "1.8㎓ 확보가 이번 경매의 주요 목적이었다"며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역이라 향후 더 넓은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져 만족한다"고 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29일 경매 1일차 마지막 라운드인 7라운드와 이날 2일차 첫 번째 라운드인 8라운드에서 연속으로 5개 블록 모두 입찰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매규칙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상인 A, B, C, D, E 등 5개 블록 모두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으면 경매를 종료하고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는 과거 두 차례의 경매에서 제기됐던 과열경쟁이나 경쟁사 네거티브 견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각 사에 필요한 주파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했다. /안진수 기자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연 27.9%로 제한 추진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정해졌다

또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진수기자